

나를 통해 오시는 주님

2020. 12. 20. 대림4주일

사무하 7:1-11, 16 / 성모 마리아 송가 / 로마 16:25-27 / 루가 1:26-38

#

오늘의 주인공은 나자렛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유대에서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마르타의 동생이자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의 열세 번째 제자로까지 거론되는 막달라 마리아 등
성경에는 참 많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미리암(모세의 누이)으로 불렸는데
히브리어 마라(논쟁을 불러일으키다, 저항하다)에서 파생한
메리(반란 저항 반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거치면서
마리암(Mariam), 마리아(Maria),
영어로는 메리(Mary)로 전해지게 되지요.

10대 중반이었을 이 소녀는

어떤 꿈을 품고 살고 있었을까요?

당시 갈릴리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이었기에
생활이 그다지 녹록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가슴 벅찬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의 삶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다면
당연히 당황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생각합니다.

‘은총? 기뻐하라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아마도 표정에 모두 드러났겠지요.

천사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런데 점지해 준 이름이 왜 예수였을까요?

예수라는 이름도 마리아라는 이름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선 독특한 것 하나 없이 매우 친숙한 이름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유명한 선지자 ‘호세아’도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어원은 ‘야샤으’(יָשׁוּעַ)라는 단어로

‘구원하다’ 또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천사는 ‘**구원자(예수)**’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이가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아의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자기는 처녀였고, 약혼자 요셉도 다윗가문이기는 했지만

당시 왕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의심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얼굴을 보고

천사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어 마리아의 의심에 썩기를 박습니다.

늦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예로 들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결국 모든 의심을 버리고

자기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조그만 시골 처녀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자'이자, '영원히 다스릴 왕'인
'하느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때로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저에게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얼굴에 무지개 스티커를 붙이고 다가온
옛된 십대 소녀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신부님이시죠? 손 한 번 잡아 봐도 되요?"

두려움과 분노, 걱정으로 감정이 격양되어 있던 저에게
그 소녀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다!"

부모님에게도, 다니던 교회에서도 늘 거부당했던 한 아이가
비로소 그곳에 어리버리 서 있던 한 신부를 통해
다시 하느님을 만난 것입니다.
"좋다"라는 한마디에는 이같이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해 소녀는 위로를 받았고
그 소녀의 위로를 통해 저 또한 위로 받았습니다.
그 시간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소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얼굴을 한 천사가
예기치 않은 때 다가올 것입니다.**

형제, 배우자,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거나 생판 모르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를, 영원히 다스릴 왕을, 하느님의 아들을 품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구에
주저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품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느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이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려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품은 하느님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